백양사 지장암 현왕도, 80년 만에 제자리

1900년 봉안된 불화, 독일서 환수
근대 불교미술 귀중한 복원 사례
산내 지장암 복원 후 봉안 예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가 산내 암자인 지장암의 현왕도 1점을 80여 년 만에 제자리로 봉안했다.

이번에 돌아온 현왕도는 광무 4년(1900) 경자년 4월, 당시 백암산 정토사(현 백양사) 지장암에 봉안된 불화로, 일제강점기 때 독일로 반출된 이후 오랜 세월 해외에 머물러 있었다. 이 불화는 독일에 거주하던 동포가 현지에서 구입해 소장해 오다가, 귀국과 함께 백양사 관계자와 인연이 닿으면서 마침내 본처로 돌아오게 됐다.

현왕도는 조선 말기의 대표 화승 화담 법립 스님(1848~1902)이 증명한 불화로, 그가 백암산에 창건한 관음암(현 지장암으로 추정)에 봉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어는 화승 종인으로, 이후 1917년 백양사 괘불 조성에도 참여한 인물로 전해진다. 이로써 백양사는 근대기 불화의 계보를 복원하고, 지역 불교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를 더하게 됐다.


독일에서 80여 년 만에 돌아온 옛 백양사 지장암 현왕도.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8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현왕도가 백양사로 다시 오기까지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장암의 위치를 발굴·확인하고, 복원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백양사에서 반출된 성보문화유산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가겠다"며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현왕도는 백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전문가의 정밀 조사와 보존처리를 거친 뒤 신도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지장암 복원 시에는 본래 자리인 암자 내에 봉안될 계획이다.

백양사는 이번 환수 사례를 통해 근대 불교미술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성보문화유산의 귀환을 위한 모범적 선례를 남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쌍계사, 자비방생 40년·개산 1302주년 회향

11월 2일 본말사연합 방생법회
거제시에 고향사랑 1000만원
개산대재 · 차문화대축전 회향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11월 2일 대웅전 일원에서 제40회 본말사 연합회 자비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고산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방생 법회가 40년을 이어 온 뜻깊은 법석으로, 사부대중이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서원을 거듭 새겼다.

법회에는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과 주지 지현 스님, 쌍계사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구현 경상남도의회 의원, 민기식 거제시 부시장, 정영석 하동군의회 부의장과 강희승 의원, 최양희 거제시의회 의원, 조여문 경남도청 문화예술과장 등 지역 인사와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괘불이운, 방생의식과 축원,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개회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주지스님 인사말, 본·말사연합회장 개회사, 회주스님 격려사, 내빈 소개, 거제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청법가, 법어, 축가, 사홍서원, 공지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는 11월 2일 대웅전 일원에서 제40회 본말사 연합회 자비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산대재와 차문화 대축제도 회향했다.

주지 지현 스님은 "고산 대선사님의 서원과 회주 영담 스님, 그리고 본·말사 스님들의 화합으로 자비방생이 교구의 전통으로 뿌리내렸다"며 "쌍계사가 수행과 화합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본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은 "방생은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업장을 녹이고 공덕을 짓는 수행"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오늘의 방생이 생명 평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주 영담 스님은 "고산 큰스님께서 시작하신 방생법회가 강산이 네 번 바뀌는 세월 동안 교구의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졌다"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연합합창단이 '아침의 노래'와 '방생의 노래'를 합창해 도량의 서원을 북돋웠고, 청법가에 이어 계행과 자비의 가르침을 설한 고산 스님의 영상 법어가 상영됐다.

이와 쌍계사 본말사연합회는 거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민기식 거제시 부시장은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기부로 거제 시민들에게 큰 감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쌍계사 개산 1302년·차나무 식재 1197년·창건 1185년' 기념 대축전의 회향 법석도 함께 진행됐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열린 대축전은 대방광불화엄경 약찬가 독송 정진, 덕민 스님의 '초의선사 동다송' 특강, 차나무 식재 1197주년 기념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능가사, '발효' 사찰음식 맛·철학 전하다

11월 2일 사찰음식 대향연…100종 발효음식 선봬

사찰음식의 깊은 맛과 수행의 정신을 담은 발효음식 전시회가 전남 고흥에서 열렸다.

고흥 팔영산 능가사(주지 진허 스님)는 11월 2일 경내에서 2025 사찰음식 홍보행사인 '능가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했다.〈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고흥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발효'를 주제로 된장·김치·장아찌·식초 등 4개 분야의 발효음식 100여 가지를 전시하고 일부는 시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능가사 회주 일귀 스님, 주지 진허 스님, 사찰음식 전문가 홍승 스님, 김경서 치유음식 사찰음식연구원, 김학규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장 등이 참여해 사찰음식의 전통과 철학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전시 개막에 앞서 법문에 나선 회주 일귀 스님은 "항상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살아야 한다"며 "오늘은 그 마음으로 사찰음식의 참맛을 음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진허 스님은 "사찰음식 대향연에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능가사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 '발효'를 주제로 한 대향연을 통해 사찰음식의 다양함과 건강한 맛을 함께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전시에서는 된장과 장아찌, 김치, 식초 등 발효음식의 정수를 담은 다양한 요리가 선보였다. 갓김치·열무김치·토마토 물김치 등 30여 종의 김치와 파인애플·석류·감귤·블루베리로 만든 20여 종의 식초, 도라지·연근·더덕 장아찌 등 30여 종의 장아찌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상차림' 코너에서는 김치밥, 능이버섯 김치국, 두부 고추장 강정, 장아찌 밥 등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7개 대학 학생 합동 수계법회

11월 1일, 전북지역 대학 불교동아리 70명 참여

전북지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참다운 불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수계법회가 열렸다.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11월 1일 대적광전에서 '전북지역 청년·대학생불자 수계법회' 및 '제12회 청년·대학생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수계법회는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금산사가 전국 청년 대학생들의 원력과 정진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수계법회 전계대화상은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갈마아사리는 덕림 스님, 교수아사리는 원묵 스님이 맡아 청년 불자들의 첫 계행을 증명했다. 화평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수계자들이 계율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끌었다. 수계자들에게는 수계첩과 보리수 합장주, 석초 스님(전주 서고사 주지)이 준비한 은합장주가 수여됐다.

화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불자가 된다"며 "신해행증을 통해 붓다의 깨달음인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즉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해 불교를 이끌어 가는 동량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북대, 한국농수산대, 원광대, 경상대, 조선대, 광주여대, 전남대 등 전국 7개 대학 불교동아리 소속 학생들과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회원 등 7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에는 주지 화평 스님과 덕림 스님, 원묵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포교국장 효진 스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주지 제환 스님, 전북대 대불련 지도법사 우경 스님, 원광대 대불련 지도법사 정안 스님, 전주 서고사 주지 석초 스님, 인담 스님이 함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인사, 제3기 전통판각 교육 고불식

11월 1일, 3년 과정 입재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1월 1일 해인사 판각학교에서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제3기 전통판각 교육 고불식'을 봉행했다.〈사진〉

해인사 장경도감(이사장 혜일스님) 주관으로 열린 고불식에는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판각학교장 도윤 스님, 총무국장 향록 스님, 염불원장 광해 스님, 승가대 및 율학승가대학원 교수사와 학인, 박영덕 각자장, 1·2기 수료생과 3기 교육생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장경도감 이사장이자 해인사 주지인 혜일 스님은 치사에서 "3년 동안 이어질 이 배움의 인연을 통해 정신의 안정과 집중을 얻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해인사 장경도감은 지난해 팔만대장경 복각의 첫걸음으로 판각학교를 개설해 전통각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기 교육은 학인 스님 중심으로 진행됐고 2기부터는 일반에 개방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35사단 장병 수계법회

11월 2일, 호국충경사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35사단 장병 3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1월 2일 35사단 호국충경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는 전계아사리 경우 스님, 갈마아사리 대원 스님, 교수아사리 종고 스님을 수계법사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장병들은 전계아사리 경우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수지하며 불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지 경우 스님은 "오늘의 수계법회를 통해 수지한 삼귀의계와 오계의 계율이 힘든 병영 생활을 지켜 주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계율이 군생활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밝은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붓다라마사원, 제3회 가사공양

11월 2일, 우안거 해제 기념



천안 태국불교 사찰인 붓다라마사원(주지 찌라삭 스님)은 11월 2일 '제3회 가사공양(가띤 법회)'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우안거 해제를 기념해 승단의 청정한 계행을 찬탄하고, 지난 10월 24일 서거한 태국 씨리킷 황후를 추모하며 그 자비와 은혜를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태국 교민들은 직접 만들어 온 전통 음식을 70여 개의 부스에 정성껏 차려 참가자들과 나누고 가사공양의 의미를 새겼다.

주지 찌라삭 스님은 회향 인사에서 "가사공양의 공덕이 각자의 삶에 평화와 자비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 도량이 태국 불자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불법 수행을 통해 서로를 보듬는 신심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익산 정각사, '해 지고 달 품다' 산사음악회

11월 1일, 경내 특설무대서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 스님)는 11월 1일 '해는 지고 달을 품다'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극락전 앞 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는 익산시 오산면 색소폰 동호회의 식전 공연 후 퓨전국악 아트롬의 5인조 퍼포먼스와 국악인 김아영, 트로트 가수 문희옥과 혜민, 홍원빈의 공연이 선보였다.

주지 일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정각사가 마음을 쉬는 공간,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전·세종·충청 포교역량 결집한다

11월 22일, 광제사서 문화축제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포교역량을 결집하고 문화로 화합하는 축제의 마당이 열린다.

11월 22일 세종 광제사 야외무대에서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 '대전·세종·충청 문화대축제'가 개최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법주사·마곡사·수덕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50 아라한 야단법석'을 주제로 지역 불교계의 포교활동을 활성화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각 교구본사 및 말사의 스님과 신도회, 불교대학, 어린이·청소년 단체, 청년 불자, 전법단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사전 접수와 현장 등록으로 할 수 있다. 02-2011-1891

유재상 충청지사장